

2018학년도 중등학교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국 어

수험 번호 : ( )

성 명 : ( )

제1차 시험	2 교시 전공 A	14문항 40점	시험 시간 90분
--------	-----------	----------	-----------

- 문제지 전체 면수가 맞는지 확인하십시오.
- 모든 문항에는 배점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1. 다음은 ‘말하기 불안’에 대처하는 방법을 지도하기 위한 교사 협의회 내용의 일부이다. 괄호 안의 ㉠~㉣에 해당하는 내용을 순서대로 쓰시오. [2점]

김 교사: 발표 수업에서 말하기 불안을 느끼는 학생들이 많은 것 같아요. 오늘은 말하기 불안에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교사: 학생들의 말하기 불안과 발표 수행에 대한 연구를 찾아보았더니 <표>와 같이 학생들을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하더군요.

<표> 말하기 불안과 발표 수행 수준에 따른 학생 유형

발표 수행 수준 말하기 불안 수준	미흡	우수
낮음	A 유형	B 유형
높음	C 유형	D 유형

박 교사: 흥미롭네요. 각 유형별로 말하기 불안에 대처하는 효과적인 방법이 있을까요?

이 교사: 네, ( ㉠ ) 유형의 경우는 말하기 불안 수준이 높지 않으므로 현재의 발표 수행 수준을 유지해 나가면 되겠습니다. ( ㉡ ) 유형에 속하는 학생들은 말하기 불안 수준이 높지 않으나 화법 기능(技能)이 부족하므로 말하기 행동에 중점을 둔 접근이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비해 ( ㉢ ) 유형의 경우, 말하기 행동에 중점을 둔 접근보다는 말하기 불안을 유발하는 부정적 인식을 극복하게 하거나 말하기 불안 감정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효과적이겠죠. ( ㉣ ) 유형에 속하는 학생들은 이러한 행동적, 인지적, 감정적 접근 방법을 다면적으로 활용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 교사: C 유형 학생들에게 가장 많은 관심이 필요한 것 같군요. 이 학생들을 위한 지도 방법을 추천해 주시겠어요?

이 교사: 말하기 불안을 유발하는 부정적 인식을 극복하게 하는 게 우선 중요하겠죠. 그리고 말하기 불안 감정 자체를 완화하는 훈련도 도움이 되는데, 널리 알려진 방법 중 한 가지는 ( ㉣ )입니다. 심부 근육의 긴장을 이완하게 하고, 특정한 말하기 상황을 떠올리면서 긴장 이완 훈련을 하다가, 점차적으로 긴장의 강도가 높은 말하기 상황을 떠올리면서 긴장 이완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말하기 불안을 완화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으로는 ‘실제 상황 노출법’이 있습니다.

... (하략) ...

2. 박 교사는 학생들의 읽기 능력을 신장시키기 위해 다음과 같이 수업하였다. 괄호 안의 ㉠, ㉡에 해당하는 말을 순서대로 쓰되, 각각 한 단어로 쓰시오. [2점]

글을 읽을 때 우리는 나뭇잎의 의미를 구성하게 되지요. 오늘은 이 점에 대해 살펴보고요. 먼저 다음 글을 읽어 보세요.

오늘날 한국은 개인주의 시대에 진입한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는 갈수록 개인주의가 심화될 것이다. 이러한 시대에 홀로 제 운명을 감당하며 살 수는 없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불확실한 미래에 대처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돈을 확보하는 데 관심을 쏟기도 한다. 한편으로는 지역 공동체나 국가가 제공하는 보장 제도가 점차 탄탄해지고 있으니 미래에 개인이 감당해야 할 불안이 줄어들 것으로 낙관하는 사람들도 있다.

인간은 빵만으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공동 연대가 꼭 개개인의 생존을 위해서만 요구되는 것도 아니다. 삶의 가치를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개체라는 생물학적 단위를 넘어설 필요가 있다. 가족은 사회적·경제적 책임을 함께 나누고 실질적인 도움과 정신적인 위안을 주고받는다. 지역 공동체, 국가도 이 역할을 할 수 있지만 혈족만큼 기대할 수 없다. 개인주의 시대에 진정으로 기댈 수 있는 공동체는 가족밖에 없다.

다들 읽었나요? 같은 글을 읽었지만 각자 구성한 의미는 다를 거예요. 선생님이 이 글을 읽고 의미를 구성한 예를 준비해 봤어요.

- 예1** 필자는 가족을 혈족으로만 생각하는 한계가 있다. 혈족은 대부분 개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맺어지기 때문에 수동적인 면이 있다. 공동 연대는 상대에게 기대기 전에 내가 나서서 기꺼이 책임을 지는 적극성을 요한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 연대의 기반을 가족보다는 가족 너머의 애정 공동체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 예2** 우리가 중국에 돌아가 기댈 공동체는 가족이다. 가족은 가장 안전한 울타리이다. 울타리는 나를 감싸 주기도 하지만 그 밖을 신경 쓰지 않게 해 주기도 한다. 그래서 울타리 안에 있으면 울타리 밖의 외부 세계의 굴레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자유가 생긴다. 우리가 가족에게로 돌아가 기대는 것은 사회적·경제적 책임을 나누고 도움과 위안을 주고받는 일이면서 외부 세계의 굴레로부터 벗어나 자유를 얻는 일이 될 것이다.

**예1**에서는 개인주의 시대에 공동 연대와 책임의 문제를 가족이 아니라 가족 너머의 애정 공동체로 접근해 가자는 대안을 밝히고 있습니다. 가족에 대한 필자의 관점을 비판하며 읽은 것이 바탕이 되었지요 **예2**에도 새로운 의미 구성이 나타나 있어요. 가족이 개인의 자유를 만들어 준다는 거죠. 이 경우는 글의 의미를 수용하면서도 그 의미를 (㉠)함으로써 새로운 의미 구성을 하고 있어요. **예1**, **예2**와 같이 글을 읽고 필자의 생각에 대하여 대안을 제시하거나 새로운 의미를 구성하는 읽기를 (㉡) 읽기라고 합니다.

3. 다음은 ‘쓰기 지도’를 주제로 하여 진행한 교사 협의회 내용의 일부이다. 괄호 안의 ㉠, ㉡ 각각에 공통으로 해당하는 말을 순서대로 쓰시오. [2점]

- 박 교사: 얼마 전에 “여정, 견문, 감상이 드러나는 기행문을 쓸 수 있다.”라는 학습 목표로 글쓰기 수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글쓰기를 많이 어려워하더라고요.
- 김 교사: 학생들이 글쓰기를 어려워하는 데는 여러 원인이 있어요. 인지주의 작문 이론가들에 따르면 필자는 글을 쓰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에 부딪히는데, 능숙한 필자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인 (㉠)을/를 적절하게 사용하지만, 미숙한 필자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글을 쓰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고 해요. 그래서 미숙한 필자에게는 쓰기에 대한 지식뿐만 아니라, 다양한 (㉠)을/를 익히게 하고, 그것을 적재적소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이 필요하지요. 이때 쓰기 과정을 단계별로 구분하여 지도하는 것도 좋습니다.
- 박 교사: 그래서 쓰기를 문제 해결 과정이라고 하는군요. 그럼 내용 조직하기 단계에서 우리 학생들이 활용할 만한 것이 있을까요?
- 김 교사: 내용 생성하기를 마친 후 조직하기 단계에서는 쓸 내용을 체계화하는 방법을 추천합니다. 흔히 글의 뼈대를 만드는 일이라고 하는데, (㉡) 쓰기를 하면 글의 전개 방향과 전체 내용을 한눈에 알 수 있어서 글을 일목요연하게 쓰는 데 도움이 되지요. 다만 학생들은 한 번 (㉡)을/를 쓴 후에는 그것을 확정된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쓰기 과정에서 얼마든지 수정될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할 필요가 있어요.

4. 중세 국어 자료 ㉠~㉣에 쓰인 ‘아니’의 품사 명칭을 쓰시오. [2점]

- ㉠ 불휘 기픈 남긴 바르매 아니 뉘씨
- ㉡ 생이며 생 아니를 고희느니
- ㉢ 뉘 아니 오스븀리
- ㉣ 숲가락과 숲가락 아니와애 나게 흐리라

자료	품사 명칭
㉠	
㉡	
㉢	
㉣	

5. 다음은 동작상에 대한 교사의 설명 중 일부이다. 괄호 안의 ㉠에 공통으로 해당하는 말과 ㉡에 해당하는 말을 순서대로 쓰시오. [2점]

오늘은 국어의 동작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동생이 춤을 추었다.  
 (2) 동생이 밥을 먹고 있다.  
 (3) 동생이 의자에 앉아 있다.

(1)에서는 ‘-었-’에 의해 동작이 끝났다는 의미를, (2)에서는 ‘-고 있-’에 의해 동작이 계속되고 있다는 의미를 파악할 수 있지요? (1)에는 ( ㉠ )이/가, (2)에는 ( ㉡ )이/가 나타나 있습니다. (3)도 ( ㉠ )이라고 할 수 있는데, (1)과 달리 끝난 동작의 결과가 지속된다는 의미가 드러나 있습니다.

6. 다음을 읽고 (나)의 괄호 안의 ㉠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을 쓰고, ㉡에 해당하는 것을 (가)에서 찾아 쓰시오. [2점]

(가)  
 경덕왕 19년 경자 4월 초하룻날 두 해의 괴변이 10여 일간 없어지지 않았다. 일관(日官)이 아뢰기를, “인연 있는 중을 청하여 산화공덕을 드리면 재앙을 물리칠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하였다. 이에 왕은 조원전에 단을 깨끗이 만들고 청양루에 행차하여 인연 있는 스님을 기다렸다. 그때 마침 월명사가 발독을 건다가 마침 남쪽 길로 지나가고 있었다. 왕은 사람을 시켜 그를 불러와 단을 열고 계(啓)를 짓게 하였다. 월명사는 왕께 아뢰기를, “저는 국선의 무리에 속해 있으므로 오직 향가만 알고 범패 소리에는 익숙하지 못합니다.”라고 하였다. 왕은 “이미 인연 있는 중으로 정하였으니 향가를 지어도 좋다.”라고 하였다. 월명사는 이에 도솔가를 지어 불렀다. 그 가사는 다음과 같다.

오늘 이에 ‘散花’를 불러  
 뿌리온 꽃아, 너는,  
 곧은 마음의 命을 부리웁기에,  
 彌勒座主를 모셔라!

... (중략) ...

이 일이 있고 나서 곧 두 해의 괴변이 사라졌다.  
 - 일연, 『삼국유사』

(나)  
 『도솔가』의 창작 배경 및 과정, 기능 및 효과에 주목할 때, 산화공덕의 의례가 ( ㉠ )와/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종교로 보면 ( ㉠ )적 성격을, 이 노래로 ㉡ 재앙이 소멸되었기 때문에 효과로 보면 주술적 성격을 가졌다고 할 수 있다.

7. (가)는 한 학생이 시를 읽고 발표한 내용이고, (나)는 이에 대한 교사의 반응이다. (가)에 적용된 문학 읽기의 관점과, (나)의 괄호 안에 들어갈 말을 순서대로 쓰시오. [2점]

(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시는 안도현 시인의 「너에게 묻는다」입니다. 먼저 시를 읽어 보겠습니다.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시가 정말 짧은데 저는 이 시를 읽고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한마디 한마디가 저한테 하는 말같이 느껴졌거든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연탄처럼 뜨겁고, 헌신적이고, 열정적이었던 적이 있었는지 스스로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나)  
 재호가 「너에게 묻는다」를 읽으면서 참 소중한 경험을 했네요. 그러면 재호가 이렇게 감동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 일까요? 우선 시의 제목에서부터 재호는 이 시가 자신에게 말을 거는 것처럼 느꼈나 봅니다. 1행의 명령문도, 그리고 2~3행의 의문문도 그런 느낌에 한뭉한 것 같아요. 명령문과 의문문을 통해 이 시는 독자들을 시 속으로 끌어들이 시의 발화 상황 내에서 ( ) (으)로 참여시키고 있거든요.

... (하략) ...

8. 다음을 읽고 (나)의 괄호 안의 ㉠, ㉡에 해당하는 말을 (가)에서 찾아 각각 두 어절로 쓰시오. [2점]

(가)  
 말들은 정치도 없었고 주인도 없었다.  
 지옥이 꾸며 온 수많은 회고록과 자서전들에 동원했던 말들 역시 그러했다. 그가 써 온 원고지의 말들에는 애초부터 그것을 부리고 다스릴 수 있는 진짜 주인이 있을 수 없었다. 자서전의 주인공들은 애초부터 지옥이 동원해 온 말들과는 인연이 없는 위인들이었다. 지옥이 그런 위인들을 위해 강제 봉사를 시켜 왔을 뿐이었다. 말들은 마침내 스스로의 성실성에 둔감해졌고, 스스로의 신뢰를 단념하기에 이르렀다. 말들의 슬픈 해방이었다. 지옥은 이제 고삐를 벗어 버린 말들의 율령을 부릴 수가 없게 되어 있었다. 피문오 씨의 일을 더 이상 계속해 나갈 수가 없었다.

지옥은 초조했다. 그럭저럭 사오 년 가까이 지탱해 온 호구지책이 속절없이 무너져 나가는 판이었다. 오죽 통화극으로 인한 그 흑심한 자기 모멸감에도 불구하고 몽그적몽그적 며칠이 못 가 다시 원고지 앞으로 이끌려 가 앉아야 했을 만큼 지겨운 요즘의 생활이었다.

하지만 지옥은 이제 단념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피문오 씨를 단념하고 나서 마지막으로 한번 더 최상운 선생(충청북도 어느 산간 벽지에서 10만 평의 황무지 야산을 개간. 젖과 꿀물이 흐르는 옥토로 일궈 냈다는 그 의지의 사나이 말이다)에게나 기대를 걸어 보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다. 최상운 선생——그 자기의 땅에서 자기 손으로 가꿔 얻은 감자만을 먹고 산다는 고집스런 사내에게서라면 그의 회고록의 대필자로서나마 어떤 구체적인 인간사의 알맹이를 체험할 수 있을 것 같았다. 피문오 씨의 경우에서처럼 공허한 말의 유희에는 심신을 덜 시달려도 될 것 같았다. 적어도 그 최상운 선생에게만은 그에게 봉사시킬 말과, 그 말들을 거짓 없이 부릴 수 있는 소박하고도 떳떳한 삶의 실체가 여물어 가고 있을 것 같았다.

최상운 선생을 생각하자 지옥은 마침내 피문오 씨의 일을 단념할 용기가 생겼다.

그는 자서전 원고지를 걷어치웠다. 그리고 기왕 결단이 선 김에 그의 일을 하지 않게 된 데 대한 작자의 양해도 구할 겸해서 솔직한 해명의 글을 쓰기 시작했다.

-이청준, 「자서전들 쓰십시다」

(나)

학생: 선생님, 이 작품에서 “말들은 정치도 없었고 주인도 없었다.”라는 부분이 잘 이해가 안돼요.

교사: 주인공은 자신이 쓴 자서전이나 회고록이 대상의 본질이나 의미를 왜곡하거나 제대로 드러내지 못한 채 (㉠)(으)로 전락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지요.

학생: 그래서 주인공이 피문오 씨가 의뢰한 일을 포기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최상운 씨의 회고록 대필에 대해서는 기대를 걸어 보려고 하는 거죠?

교사: 주인공은 최상운 씨가 힘겨운 노력을 통해 의미 있는 성과를 이루어 내고 있으므로 그에게서 (㉡)을/를 발견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하는 것 같아요.

9. 다음은 “잊힐 권리”를 법제화하여야 한다.”라는 논제에 대한 학생 토론의 일부이다. 찬성 측 (1)의 ‘입론’과 반대 측 (2)의 ‘반대신문’에 대한 지도 내용을 <작성 방법>에 따라 쓰시오. [4점]

찬성 측 (1): 찬성 측 입론 시작하겠습니다. ‘잊힐 권리’란 온라인에서 자기와 관련된 정보의 삭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취업 준비생인 김 모 씨는 과거에 한 사이트에 자신이 올린 게시물을 지우고 싶지만, 해당 게시물에 댓글이 달려 지울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고민이라고 합니다. 자신의 이름을 검색하면 검색 결과에 해당 게시물이 노출되어 취업에 불이익을 받을까 두렵다고 합니다. 취업 준비생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문제를 고민하고 있지만 ‘잊힐 권리’가 인정되지 않고 있어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러한 상황이 계속된다면 개인의 인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가 발생할 수 있고 사회적 갈등도 확대될 것입니다. ‘잊힐 권리’를 법제화하면 법적 구속력이 생기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신에 대한 정보나 자신이 작성한 게시물만 삭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가이드 라인을 제시한 바 있고 이에 대한 여론의 지지도가 높기 때문에 ‘잊힐 권리’의 법제화는 실행 가능성 측면에서도 문제가 없습니다.

반대 측 (2): 반대 신문하겠습니다. ㉠ ‘잊힐 권리’를 보장하는 법으로 이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요?

찬성 측 (1): 물론입니다. ‘잊힐 권리’를 법제화하면 원치 않는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게시물을 삭제하지 못해서 발생할 수 있는 명예 훼손이나 취업 기회 박탈 등 개인이 누려야 할 자유권 침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대 측 (2): 이미 관련 법률이 있을 경우에는 법제화가 필요 없겠죠?

찬성 측 (1): 그렇습니다.

반대 측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2에 ‘정보의 삭제 요청’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찬성 측 (1): 확인해 보지 못했습니다.

반대 측 (2): ㉡ 저는 ‘잊힐 권리’보다 ‘표현할 권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잊힐 권리’가 ‘표현할 권리’와 충돌한다면 어떤 권리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찬성 측 (1): 그거야 상황에 따라서 다르겠죠.

... (하략) ...

<작성 방법>

- 정책 논제에 대한 토론의 ‘입론’에서 다루어야 할 필수 쟁점으로는 ‘문제 쟁점, 해결 쟁점, 이익 쟁점’의 3가지를 들 수 있다. 이 중에서 찬성 측 입론에 누락된 쟁점 1가지를 밝히고, 그 쟁점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을 서술할 것.
- ㉠과 ㉡이 반대 신문으로 적절하지 않은 이유를 각각 서술할 것.

10. 다음은 유음화에 대한 수업의 일부이다. 교사가 이 수업에서 지도해야 할 내용을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4점]

칼날, 신라, 닳는, 읽는

교사: 여러분, '칼날', '신라', '닳는', '읽는'을 순서대로 발음해 보세요.

학생: [칼랄], [실라], [달른], [잉느]입니다.

교사: 네, 잘했어요. 이 중 '칼날', '신라', '닳는'에서는 유음화가 일어나지만 '읽는'에서는 유음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이제부터 유음화에 대해 더 알아보시다.

<작성 방법>

- '칼날'과 '신라'에서 일어나는 유음화의 음운론적 환경을 밝히고 유음화의 방향을 각각 서술할 것.
- '닳는'에서는 유음화가 일어나지만 '읽는'에서는 유음화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를 비교하여 서술할 것.

11. 다음은 '결코', '아무도'에 대한 수업의 일부이다. '결코', '아무도'의 특성에 대해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4점]

(1) a. 내 친구는 결코 과자를 먹지 않았다.  
b. \*내 친구는 결코 과자를 먹었다.

(2) a. 아무도 그 회의에 가지 못했다.  
b. \*아무도 그 회의에 갔다.

(3) a. 그 영화 속 주인공은 결코 인간적이지 않다.  
b. \*그 영화 속 주인공은 결코 비인간적이다.

(4) a. 그 역할에는 아무도 적합하지 않다.  
b. \*그 역할에는 아무도 부적합하다.

(5) a. 나는 결코 그 자리에 없었다.  
b. 아무도 그 사실을 모른다.  
c. 아무도 목격자가 아니다.

(\* 비문법적인 문장)

교사: (1)과 (2)는 '결코', '아무도'의 용법상 특성을 잘 보여 줍니다.

학생: 그런데 (3), (4)에서는 뒤의 서술어들이 모두 부정의 의미를 지녔는데도 불구하고, '인간적이지 않다', '적합하지 않다'일 때와는 달리, '비인간적이다', '부적합하다'일 때는 비문법적인 문장이 되네요?

교사: 아주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네요. (3), (4)에서, 문장의 서술어로 부정의 의미를 지닌 단어가 오더라도 부정문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국어에서 부정문이 되려면, ㉠ '안'이나 '못', '않다'나 '못하다' 등의 부정 요소가 서술어와 결합한 통사적 구성이어야 해요.

학생: (5)의 예문들은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통사적 구성이 아닌데도 문법적인 문장이네요.

교사: 그건 (5)의 문장들에 사용된 ㉡ '없다', '모르다', '아니다'의 특성 때문이에요. 이들 단어가 서술어일 때는 (3b), (4b)와는 달리 자연스러운 부정문이 돼요. 그래서 이들 각각은 ㉢ '있지 않다', '알지 못하다', '이지 않다'의 기능을 하는 것으로 보기도 해요.

<작성 방법>

- (1), (2)에서 '결코', '아무도'가 보이는 용법상 특성을 서술할 것.
- (3b), (4b)의 '비인간적이다', '부적합하다'에서 각각 부정의 의미를 표시하는 요소를 밝히고, 이 요소와 ㉠의 문법적 기능의 차이점을 서술할 것.
- (5)가 문법적인 문장인 이유를, ㉡과 이에 각각 대응되는 ㉢의 '있-', '알-', '이-' 사이에 발견되는 의미 관계를 이용하여 서술할 것.

12. 다음은 작품의 표현 의도 이해를 위한 교수·학습 계획의 일부이다. 교수·학습 내용을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4점]

학습 목표	표현 의도에 주목하여 작품을 이해할 수 있다.
활동 제재	<p>아이들이 큰소리로 책을 읽는다          ㉠ 나는 물끄러미 그 소리를 듣고 있다          한 아이가 소리내어 책을 읽으면          딴 아이도 따라서 책을 읽는다          청아한 목소리로 꾸밈없는 목소리로</p> <p>[A] “아니다 아니다!”하고 읽으니          “아니다 아니다!” 따라서 읽는다          “그렇다 그렇다!”하고 읽으니          “그렇다 그렇다!” 따라서 읽는다          외우기도 좋아라 하급반 교과서          활자도 커다랗고 읽기에도 좋아라          목소리 하나도 흐트러지지 않고          한 아이가 읽는 대로 따라 읽는다</p> <p>이 봄날 쓸쓸한 우리들의 책읽기여          우리나라 아이들의 목청들이여          - 김명수, 「하급반 교과서」</p>
활동	<p>(1) 1연과 2연의 분위기 차이 파악하기          (2) 작품의 표현 의도 추론하기          (3) 표현 의도에 주목하여 작품 이해하기</p>

—<작성 방법>—

- ‘쓸쓸한’이라는 시어를 중심으로 1연과 2연의 분위기 차이를 서술할 것.
- ㉠에 나타난 화자의 태도를 서술할 것.
- [A]에 담긴 의미를 서술할 것.

13. 다음은 조선 시대 오륜시가를 탐구하기 위한 교수·학습 자료이다. <보기>를 참고하여 오륜시가의 감상 내용에 대해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4점]

(가)  
 아버님 랄 나흐시고 어마님 랄 기르시니  
 父母웃 아니시면 ㉠ 내 몸이 엽실랏다  
 이 덕을 갑쁘려 하니 하눌 ㄱ이 엽스샏다 <제2수>

동과 향것\*과를 뉘라셔 삼기신고  
 별와 가여미\*\*아 이 뜨들 문져 아이\*\*\*  
 흥 믈으매 두 뜯 엽시 소기지나 마옵생이다 <제3수>  
 - 주세붕, 「오륜가」

(나)  
 부모은덕 모르고셔 ㉡ 제 몸만 중이 알며  
 제 몸의 의식지절 먹고 입기 풍비호되  
 부모의계 하올거슨 등한이 이저시니  
 부모의 훈계 칙망 대답의 불순호여  
 흥깃갓치 디접호니 룬기가 물너진다  
 사라셔 불효라도 그 부모 주거지면  
 남의 이목 위호여셔 삼연거상 이블적의  
 실흔 우름 강잉호고 읍난 정성 지어니여  
 예절를 아는다시 정찬으로 제우한덜  
 나무 이목 두려우니 그 놈 아니 주길손가  
 말 못하는 가마귀도 반포할 줄 아라거든  
 사람이라 위명호고 미물만도 못하여라  
 부모의계 득죄호고 세상의 엇지 용납호리  
 명천이 미워호스 양화가 일노나니  
 그 아니 두려우며 전들 어이 조홀손가  
 ... (하략) ...  
 - 광시징, 「오륜가」

\* 동과 향것: 종과 주인.  
 \*\* 가여미: 개미.  
 \*\*\* 아이: 아니.

—<보 기>—

오륜시가는 조선 시대 전반에 걸쳐 창작되었고, 여러 장르에서 다양한 표현 방식을 창출하면서 전개되었다. 조선 전기 악장 「오륜가」에서부터 주세붕의 시조 「오륜가」, 조선 후기 광시징의 가사 「오륜가」 등이 그 예라 할 수 있다.

성리학적 이념에 따라 건국된 조선은 윤리적 교화로써 공동체의 질서를 세우고 보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오륜시가를 지어 보급하였다. 오륜 교화의 목적은 상하를 분별하여 낮은 위치에 놓인 사람이 높은 위치에 놓인 사람에 대해 오륜의 도리를 당위적으로 실천하게 하는 데 있다. 이러한 이유로 교화 대상자를 설득하기 위해 문학적 장치가 필요했다.

오륜시가의 작가는 작품 속 인물에 따라 전달 방식을 달리 함으로써 독자는 의무적 수용 혹은 자발적·성찰적 수용 사이에 놓이게 된다.

—<작성 방법>—

- ㉠, ㉡을 중심으로 (가), (나)의 전달 방식의 차이점에 대해 서술할 것.
- (가), (나)에서 각 작품과 관련된 오륜의 덕목을 드러내고 있는 자연물을 각각 찾고, 그 자연물을 끌어들이는 이유를 서술할 것.

14. 다음을 읽고 <보기>를 참고하여 설화와 소설의 관련성에 대해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4점]

최충이 좋은 날을 가려 발행(發行)하여 문창현에 이르러서 사무를 인계 받은 후에, 아전에게 붉은 실을 거둬들이라고 분부하였다. 그러고는 그 실을 무수하게 길게 이어, 한 끝을 아내의 몸에 매고 있었다.

하루는 구름과 안개가 사방을 에워싸고 바람이 천지를 진동하여 지척(咫尺)도 분간하기 어려울 정도였다. 이때 최충은 외당(外堂)에서 바야흐로 공무를 보다가 날씨가 크게 변하는 것을 보고 매우 놀랐다. 이윽고 날씨가 맑게 개이더니, 안에서 종들이 급히 나와 울면서 아뢰었다.

“마님께서 비바람이 불던 중에 갑자기 사라져서 가신 곳을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모여 있삽다가 상전을 잃었으니, 죽을죄를 지었습니다.”

최충이 이 말을 듣고 대경실색(大驚失色)하여 공무를 밀쳐 두고 급히 일어나 허겁지겁 들어가 보니, 과연 아내는 간 곳 없고 붉은 실만 뜰 가운데 늘어져 있었다. 최충이 망극하여 소리를 놓아 통곡하다가 하리(下吏)를 불러 의논하여 이르기를,

“이런 요사스런 변괴를 누가 알 수 있었겠는가? 다만 붉은 실이 들어간 곳을 찾아갈 뿐이다.”

하고, 하리들 가운데 용력과 지식을 가진 아전인 이적을 데리고 칼을 손에 쥐고서 붉은 실을 따라갔다. 그 붉은 실이 북악산 꼭대기에 있는 큰 바위 틈으로 들어갔는지라. 최충이 크게 기뻐하며 살펴보니, 문이 큰 돌로 닫혀 있었다. 이적으로 하여금 그 돌을 치우게 하고 깊이 들어가니, 문득 일월이 명량한 별천지였다. 단청을 한 누각이 영롱하며 문호가 엄숙하되, 인적도 없고 새나 짐승도 보이지 않았다. 문안에 들어가 몰래 창밖에 서서 동정을 살펴며 창틈으로 엿보니, 절대가인(絶對佳人) 수십 명이 좌우에 벌여 앉아 있는데, 아내는 가운데 앉아 있고 한 금돼지가 아내의 무릎을 베고 누워 머리의 이를 잡게 하고 있었다. 최충이 아내가 살아 있음을 보고 기뻐으나 이러한 형상을 보니 간담이 떨어지는 듯 분노가 하늘 높이 치솟았다. 그러나 감히 일을 착수하지 못하고 다만 아내가 나오기를 기다리니, 부인이 창밖에 최충이 왔음을 알고 금돼지에게 말했다.

“그대에게는 세상에 무슨 두려운 일이 있겠습니까? 천 년이 지나더라도 늙지도 죽지도 아니하리라.”

금돼지가 대답하였다.

“세상에서 아무것도 두렵지 아니하나, 다만 두려운 것은 사슴 가죽이다.”

부인이 물었다.

“사슴 가죽이라는 것이 죽은 가죽에 불과하거늘, 어찌 능히 그대를 해칠 수 있겠습니까?”

금돼지가 말했다.

“비록 죽은 가죽이나 사슴 가죽에 침을 묻혀 내 이마에 붙이면 한마디 말도 못하고 즉시 죽느니라.”

부인이 마음속으로 은근히 기뻐하며 생각하니, 치마끈에 찬 열쇠끈이 마침 사슴 가죽인지라. 크게 기뻐하며 금돼지가 잠들기를 기다려 몰래 열쇠끈을 풀어 침을 묻혀 그 이마에 붙이니, 과연 금돼지가 잠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곧바로 죽어버렸다. 부인이 크게 기뻐하여 무릎을 빼고 일어나 창문을 열어젖히니, 최충이 밖에 서 있었다. 최충이 아내를 만나게 되자 자연히 두려움이 없어졌다. 그래서 몸소 방안으로 들어가 금돼지를 보니, 이미 죽어 있는데 생긴 모양이 아주 흉악하였다.

- 「최충전」

<보기>

윗글은 최치원의 부친 최충과 관련된 부분으로 ‘야래자(夜來者) 설화’, ‘지하국대적퇴치(地下國大賊退治) 설화’와의 상관성을 보여 준다. ㉠야래자 설화의 주요 내용은 ‘밤마다 누군가가 여인과 동침하고 간다. 바늘과 실을 따라가 그 정체를 확인한다. 비범한 인물이 탄생한다.’는 것이다. 지하국대적퇴치 설화는 대체로 ‘대적이 여인을 납치해 간다. ㉡남성 등장인물이 대적이 있는 곳으로 가서 대적을 퇴치하고 여인을 구출한다.’는 내용으로 이루어진다.

<작성 방법>

- 윗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을 구체적 대상을 들어 설명하고, 그 내용이 윗글의 사건 전개상 어떤 기능을 하는지 서술할 것.
- ㉡의 내용이 윗글에 수용되면서 달라진 점을 찾고, 그 차이가 지니는 의미를 서술할 것.

<수고하셨습니다.>